건강 칼럼

파킨슨병 이겨내는 한방 치료

정 은 선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한방내과2 교수

파킨슨병은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중 하나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해마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내에서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12만명 정도로 이는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250% 가량 증가한 숫자이다.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 부위 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소멸됨으로 인해 도파민의 생성과 분비가 부족해져 발생한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로 신체가 적절한 동작을 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몸의 떨림, 근육 경직, 느린 움직임, 불안정한 자세 등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이외에 통증, 우울감 등의 기분장애, 어지럼, 수면장애, 변비 등 비운동 증상도 흔하게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신경세포의 노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현재까지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따라서 파킨슨병의 치료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억제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데 잡는다. 현재 서양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파킨슨병의 주된 치료법 역시 부족해진 도파민을 약물로 보충해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약물요법은 파킨슨병의 운동증상들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레보도파 등 도파민 제제의 약물은 복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용 용량이 증가하게 되며 복용량이 증가하면 이상운동증과 같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의학적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관점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파킨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5년 동안 레보도파와 침치료를 병행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레보도파만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병의 진행이 의미있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 치료에 레보도파를 병행해 치료했을 때 레보도파의 사용량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봉독 약침 치료가 뇌신경 세포를 보호해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됐다. 떨림, 근육 경직,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증상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변비, 빈뇨, 저혈압, 우울증, 수면 장애 등 비운동 증상에도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통해 서양의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킨슨 치료에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파킨슨병 치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난치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아직 가벼운 정도의 초기 증상밖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훗날 찾아올 증상에 대한 공포감은 환자들이 치료나 운동 등 생활 관리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게 된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는다면 병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삶의 질을 개선해 좀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사 설

농수산대와 제몫 지키기

한국농수산대학과 관련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전북도는 제몫 찾기와 제몫 지키기를 병행해야겠다. 거창하게 발언한 그대로 제몫 찾기와 제몫 지키기에 성공하려면 보다 다부지고 억척스러워야 한다.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 아니라는 불만이 갈수록 팽배하고 있는데 제몫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기에 그렇다. 전북이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냐는 비아냥을 들을 때면 제몫 찾기보다 제몫 지키기 쪽에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전북도는 제몫 찾기와 함께 제몫 지키기를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절박한 당면 문제이다. 제몫 찾기는 고사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도민들은 심사가 괴롭다. 도지사를 비롯해 단체장들은 도민들의 정서를 알아야 한다. 전북도가 제몫 찾기를 말하는 것과 비례하여 제몫 지키기도 제대로 못해 왔으니 하는 말이다. 도민들의 우리 지역의 사정을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도내 고위공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도민에게 제몫 지키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길게 대답할 것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제몫 지키기이다.

제몫 찾기든 제몫 지키기이든 도민들에게 피부로 감각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제몫 찾기도 아니고 제몫 지키기도 아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전북 발전의 방향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매사에 제몫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제몫을 제대로 움켜쥐는 게 미래 비전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애착을 보여야 한다. 저번에 한국농수산대학을 분교 시켜야 한다는 외부의 발언에 도민들이 일제히 떨치고 일어나 반대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분교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전북도는 긴장해야 한다. 제몫 찾기며 제몫 지키기는 도민을 상대로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거주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이유를 전북도는 제대로 짚고 전북의 이익을 힘차게 말해야 한다.

춘화추실 비전은 증액된 예산 확보로

전북도는 증액된 예산 확보로 춘화추실의 비전을 구체화해야겠다. 도지사는 저번에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기자 간담회의 자리에서 도정의 성공을 약속했다. 그 때 도지사는 "춘화추실"이라는 멋있는 표현을 선보였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번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지사가 말한 각각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터이다. 그리고 그 열기가 증액된 예산확보를 성취시킬 때까지 식지 않고 계속 뜨거워야 한다.

증액된 예산 확보를 주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북도가 말했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8대 역점 시책도 밝혔었다. 그래서 거듭 당부하는데 전북도는 좀 더 뛰어야겠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실망스럽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약속한 것들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거듭 지연되면 낙후만 예정돼 있음을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본보는 춘화추실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최소한 예산 7조8641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북도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이 그와 같은 액수였기 때문이다.전북도는 그러므로 기재부를 상대로 힘내야 한다. 발전 방침을 밝혔는데 나중에 뭔가 일이 안 풀렸다는 식으로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가 타협하듯 7조원 대 예산 확보를 말하고 있는데 마뜩치 않다.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슷해서는 곤란하다. 7조8641억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그 다음해에 8조원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저자세를 보이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를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도지사가 춘화추실 대도약을 선언한 만큼 전북도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를 보여야 한다. 나중에 역부족이었노라며 헛된 울림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독자제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적 집회문화

지난 2016년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 왔다.

부상이나 불법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보여주었고, 경찰은 인권 존중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집회의 자유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이며, 불법의 정도에 비례한 엄격하면서도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과 자율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화경찰관 운영, 인권교육 강화, 무전녹음, 소속·신분 식별표시 부착 등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시민과 경찰이 함께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창현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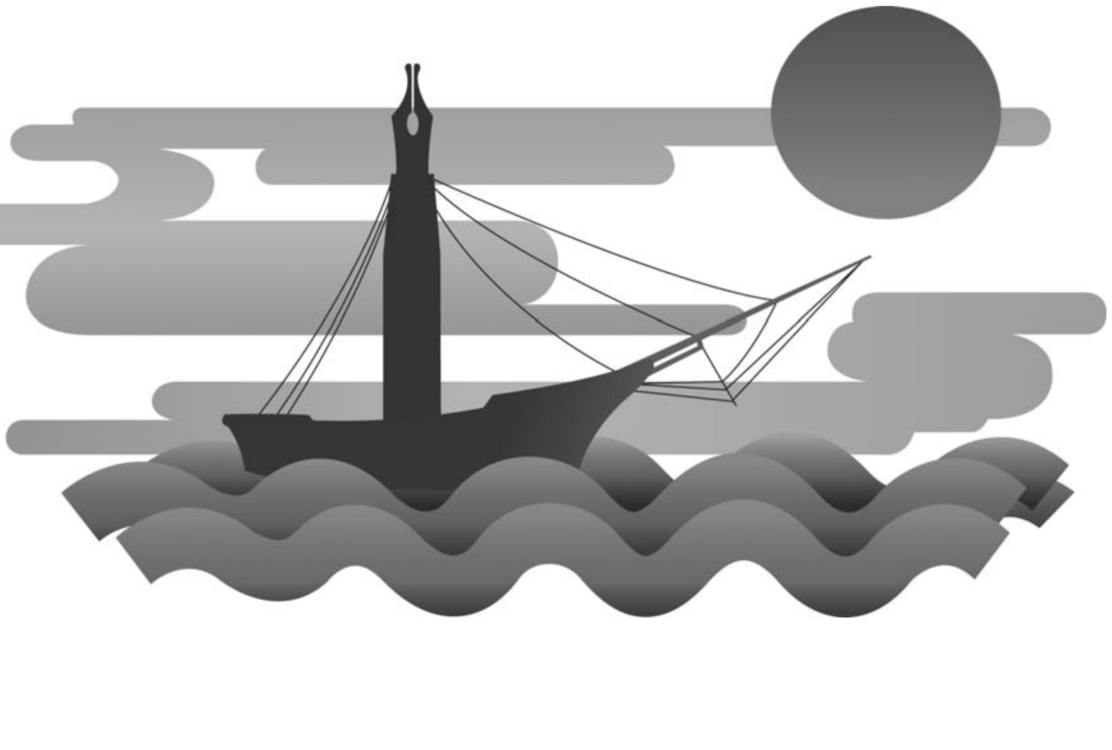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늘은 나치로부터 해방된 날"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해방 75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의상을 입고 탱크에 올라 행진하고 있다. 1944년 8월 25일 나치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군사 애호가들은 프랑스와 미군의 탱크 등이 파리로 입성하는 것을 재연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